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합동 브리핑(51차)

금일 주요 브리핑 내용

- 제주도, 대구·경북지역 긴급지원으로 총 56명 검사
- 보름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합동지원단 확대
- 제주도, 공항 국내선 출발 발열감시 시스템 구축
- 제주도, 해외방문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전격 시행
- 특별입국절차 적용 외국인유학생 2주간 자율 관리
- 기독교 예배 중지 222곳… 3월 1주보다 57개소 추가 동참
- ‘코로나 파고’ 제주수출기업 온라인 마케팅으로 넘는다!
- “코로나 이겨요” 제주나인리조트 전 객실 격리시설 무상 제공

2020. 3. 23.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20.3.23. 일일 통계 브리핑

□ 국내 발생현황 ['20.3.23. 0시 기준]

○ (제주) 확진환자 4명 (격리해제 3명, 격리 중 1명)

구분 (단위: 명)	총계	확진환자				유증상자			자가 격리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음성	
제주	1,971	4	3	1	0	1,957	48	1,919	35
일일 증감	+19	0	0	0	0	+19	+10	+9	-18
전국	338,036	8,961	3,166	5,684	111	329,075	13,628	315,447	

□ 입도객 현황 ['20.3.22. 기준, 잠정치]

○ 총 입도객: 16,644명 (작년 같은 날 대비 △60.7%, 전일 대비 △5.3%)

구분(단위: 명)		총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중국	일본	기 타
일계	2020년	16,644	16,605	39	0	2	37
	2019년	42,372	38,067	4,305	2,645	242	1,418
	증감률	△60.7%	△56.4%	△99.1%	△100%	△99.2%	△97.4%
누계 (2.23.~)	2020년	468,080	461,925	6,116	470	598	5,087
	2019년	1,037,651	924,962	112,689	64,497	6,823	41,367
	증감률	△54.9%	△50.1%	△94.5%	△99.3%	△91.2%	△87.7%

○ 대구·경북지역 입도객 현황

- 대구-제주 항공노선(2편): (도착) 316명 (출발) 358명
- 대구·경북지역 출신학생 입도: 1명 (2.6. 이후 누계 : 189명)

□ 공항만 발열감지 운영현황['20.3.22. 기준]

구분 (단위: 명)	열감지자 총계	재측정 후 귀가 (37.5℃이하)	문진상담(37.5℃이상)		
			소계	진료상담 후 귀가조치 (의심증상 無)	선별진료소 이송 (의심증상 有)
일계	33	31	2	2	0
누계(2.3~)	1,951	1,819	132	102	30*

* 이송대상자 30명 중 18명 단순발열로 귀가, 12명 검사(음성12, 검사 중0)

□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검사 지원 현황['20.3.22. 기준]

구분(단위: 명)	총계	제주도민	타 지역 주민(제주 체류)
일계	0	0	0
누계(3.7.~)	56	51	5

□ 자금지원동향['20.3.19. 기준]

구분	고용유지지원금		중소기업특별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		관광진흥기금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접수	7건/15명	434건 /4,863명	313건	9,026건	340건	7,400건	11건	954건
처리	*이행중	*1개월 단위 확인후 지급	137건/51억	4,213건/ 1,632억	79건/ 23.4억	1,764건/ 506.1억	-	678건/ 908.8억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20. 3. 23.(월) 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 대책본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710-3800
		통제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710-2800
동영상 (웹하드): 있음■ 없음□		사진 : 있음■ 없음□	후속자료 : 있음	

제주도, 대구·경북지역 긴급지원으로 총 56명 검사

- 23일 10시 기준 대구·경북지역 방문이력 도민 51명·체류객 5명… 모두 '음성' 판정 -

❑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구·경북지역 긴급지원 대책이 시행**(3월 5일) **된 이후 검사 인원은 23일 오전 10시 기준 총 56명**(제주도민 51, 대구·경북 방문 이력이 있는 제주 체류객 5)**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 22일 대구·경북지역 대학생 1명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지난 2월 6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도한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은 총 189명으로 파악됐다.

- 이 중 124명이 최대잠복기 14일을 경과했다. 나머지 65명은 자체격리 기숙사 등에서 각 대학의 모니터링 아래 자율 관리를 받고 있다.

○ 22일 대구↔제주노선 항공편 도착 탑승객은 316명, 출발 탑승객은 358명으로 하루 평균 편도 탑승객은 평시 수준인 300여 명을 유지하고 있다.

○ 대구↔제주노선 출발 전과 도착 후 승무원과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발열 검사에서도 23일 오전 현재까지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다.

대구 경북지역 긴급지원 대상

(검사당일 기준 14일 이내 대구, 경북 방문이력이 있는 무증상자)

- 1순위 : 주민등록상 주소가 2월21일 이전 제주도민으로 되어 있는자

  (*2월 21일 기준은 우리도 첫번째 대구 관련 확진자 발생)

- 2순위 : 제주도 주소를 갖지 않은 자(도외)로 대구, 경북 방문이력이 있는자 중

※ 관련 문의 :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 710-2910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한영식 총괄지원팀장 064) 710-4841

기획조정실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 064) 710-8820

[붙임] 대구·경북 입도자 관련 통계

붙임 대구 · 경북 입도자 관련 통계

□ 대구-제주 항공노선 탑승객 현황 ('20.3.22. 기준, 잠정치)

제주국제공항 대구-제주 간 항공기 운항 제주출발 및 입도 현황 (단위: 명)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제주 출발	323	354	367	367	372	368	372	370	358
제주 도착	337	291	360	372	370	352	333	353	316

※ 출 · 도착 2회 발열체크, 도착 시 이동경로 구분, 이동경로 1일 2회 방역

□ 대구 · 경북지역 방문자 검사 지원 현황('20.3.22. 기준)

대구 · 경북지역 방문자 검사 지원 현황 (단위: 명)									
	누계 (3/7~)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계	**56**	**1**	**1**	**2**	**1**	**2**	**2**	**0**	**0**
도민	51	1	1	1	1	1	1	0	0
제주 체류객	5	0	0	1	0	1	1	0	0

□ 대구 · 경북 출신 학생 입도현황 ('20.3.22. 기준, 잠정치)

대구 · 경북 출신 학생 입도현황 (단위: 명)								
계	자율격리 해제 (2/6~3/8)	14일 미경과 소계	14일미경과 (3/9~3/22)					
			3/9-3/17	3/18	3/19	3/20	3/21	3/22
189	**124**	**65***	**62**	**2**	**0**	**0**	**0**	**1**

* 대학별 학생관리: 65명(제주대(격리기숙사35, 자가 등 22), 한라대(대학 자체 숙소 6, 자가 2))

□ 공 · 항만 발열감지 현황 ('20.3.22. 기준)

공 · 항만 발열감지 현황 (단위: 명)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열감지자	**33**	**38**	**28**	**42**	**32**	**26**	**38**	**101**	**33***
누계(2/3~)	1,613	1,651	1,679	1,721	1,753	1,779	1,817	1,918	1,951

* 대구발 비행기 탑승객 중 발열감지(37.5℃이상) 없음

보름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합동점검지원단 확대

- 4월 5일까지 감염 위험 시설·업종 5,241개소 대상… 도 자체 계획 세밀히 보완 -
- 12개 분야 전담할 121개 반·532명 지원단 편성… 방역지침 이행 여부 중점 점검 -
- 지난주 일제 방역소독의 날 추진 결과 1만8000여 개소 참여… 참여 독려 지속 -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22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보름간 도내 감염 위험 시설과 업종을 대상으로 제주도와 행정시 합동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11일부터 자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 접촉 자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배려 문화 조성 등이 담긴 3대 실천수칙을 강조해왔다.

○ 이번 캠페인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제주도는 기존 도 자체 캠페인을 보다 강도 높고 세밀하게 보완해 시행하고 있다.

○ 특히, 시설 운영 제한보다 방역지침 이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독려 등에 초점을 맞추어 현장점검·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이번 특별 캠페인을 통해 집중 점검·지원할 도내 시설·업종은 모두 5,241개소다.**

○ 도내 공기업·출연기관 16개소를 비롯해 공항·항만(2개소), 콜센터(10개소), 종교시설(788개소), 노래방(320개소), PC방(285개소), 게임장(78개소), 영화관(7개소), 공연장(20개소) 등이 포함됐다.

○ 또, 골프장·체육관(34개소)과 체육시설(874개소), 유흥주점(778개소), 클럽·콜라텍(9개소), 노인복지시설(138개소), 장애인복

지시설(1개소), 학원(1,116개소), 교습소(418개소), 전통시장 등(40개소), 관광사업체 등(307개소)을 대상으로 전방위 점검을 진행한다.

❑ **제주도는 보다 세밀한 지원·관리를 위해 관리주체별 제주도·행정시 합동점검지원단을 확대 편성했다. 점검지원단은 12개 분야 총 121개 반·532명으로 구성됐다.**

○ 공기업·출연기관은 제주도 기획조정실(1개 반·11명)이, 콜센터는 도민안전실과 미래전략국(4개 반·8명)이 각각 맡는다.

○ 종교시설과 노래방·PC방은 문화정책과(3개 반·56명/ 3개 반·34개조 · 98명),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4개 반·166명). 유흥주점·클럽은 보건건강위생과(17개 반·39명), 학원·교습소는 특별자치행정국(30개 반·60명)이 각각 전담하고 현장점검·지원을 추진한다.

❑ **제주도는 현장 시설·업장을 방문해 방역물품 지원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다.**

○ 제주도는 점검지원단을 통해 시설 내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발열체크 및 손세정제 비치 운영 여부 등을 주로 점검한다.

○ 특히 지원단은 사업장 유형별 방역지침에 대한 일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주 2회씩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여는 등 세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이를 위해 제주도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관분야에 대한 통일적인 지침을 수립하고, 각 행정시 별 점검 방법을 일원화하는 등 도민 혼선 최소화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콜센터의 경우 칸막이 설치와 자리이동 금지, 수화기 소독

등의 여부를 살피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집회 중단 권고 이행 등을 점검한다.

- 체육시설과 PC방, 노래방, 클럽 등에서는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방역소독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학원 등에서는 방열감시 및 손세정제 비치 운영 여부 등을 파악한다.

○ 현재 제주도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간 집중 점검·지원의 날을 마련하고, 단기간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한편, 제주도는 두 번째 민·관·군 합동 캠페인 일제 방역소독의 날을 추진한 결과, 20일 기준 1만8,328개소가 참여하는 방역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 방역소독 점검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며, 점검 대상은 방역 사각지대로 분류되고 있는 콜센터, PC방, 게임방, 노래연습장, 장례식장, 산후조리원 등이다.

○ 제주도는 당초 일제 방역소독의 날을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으로 정례화 했으나, 범도민적인 참여 독려를 위해 일일 방역소독 상황을 점검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종합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캠페인을 확대했다.

○ 첫 번째 캠페인(1만9,330개소) 때보다 실적이 낮은 이유는 종교집회·밀집 행사 중단 자제 등의 이행으로 대상 시설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 **앞으로 제주도는 도와 행정시 합동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캠페인과 함께 일제 방역소독의 날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 관련 문의 : 도민안전실 양기정 재난대응과장 064) 710-3630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 710-2910

제주도, 공항 국내선 출발 발열감시 시스템 구축

- 현행 1일 18명 → 34명으로 확대 발열감시 인력 확대

- 국내선 출발장 발열감시 카메라 4대 추가 설치해 출·입도 관문 단속 -

❑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을 위해 지난 2월 2일부터 제주국제공항 국내선과 항만 도착장**(2월 3일부터 시행)**에서 발열 감시를 시행한 데 이어, 내일**(24일)**부터는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출발 시에도 발열 감시를 진행한다.**

❍ 이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전국 단위 발열 감지 시스템 구축으로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적 조치이다.

❍ 그동안 국내선 항공기의 경우 발열 체크 등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시행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국내선 도착 시에도 발열감시를 시행한데 이어, 출발 시에도 발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 **이를 위해 제주국제공항 출발장 2개 지점에 4대의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됐다.**

❍ 제주도는 국립제주검역소 제주국제공항지소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의 협조를 받아 제주국제공항 출발장에 23일 열화상카메라 4대를 설치 완료했다.

❍ 발열 감시 인원은 2교대 2개조로 운영된다. 도는 도간호사회·도간호조무사회·해병제9여단의 지원을 받아 간호인력 8명과 행정인력 8명, 총 16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한 상태다.

❍ 이로써 오늘부터 제주국제공항의 발열감시 인원은 1일 18명<도착장(18명): 의사 2, 간호인력 8, 행정인력 8명>에서 총 34명<출발장(16명): 간호인력 8명, 군인 8명 / 도착장 인원(18명)>으로 확대됐다.

❑ **한편, 지난 2월 29일부터 제주도가 수차례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각 항공사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전 발열검사 시행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 타시도 지자체와 한국공항공사에서는 김포공항(3.21), 김해공항(3.23) 등 국내선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 전에 발열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 제주도는 항공기 출발 전 발열검사 시행으로 제주를 오가는 입도객에 대한 방역이 더욱 철저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관련 문의 :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 710-2910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문경종 사회재난팀장 064) 710-3632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한영식 총괄지원팀장 064) 710-4841

붙임 제주기점 국내공항 출발 전 발열검사 현황

공항별	일시	운영기관	방법
김포	3.21.	공항공사	열화상카메라
김해	3.23.	지자체, 공항공사	열화상카메라
대구	3.5.	항공사 (티웨이항공)	비접촉체온계
청주	3.19.	지자체, 공항공사	열화상카메라
양양	3.20.	지자체, 공항공사	열화상카메라
광주	3.23.	지자체, 공항공사	열화상카메라
여수	3.23.	공항공사	열화상카메라
군산	3.4.	공항공사	열화상카메라

※ 제주노선 운휴중 (5개공항) : 무안, 포항, 사천, 원주, 울산

제주도, 해외방문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전격 시행

- 24일부터 증상발현 여부 관계없이 검사‥ 제주도민 1순위로 우선 지원 -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앞서 지난 5일부터 대구·경북지역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 중이다.

❑ **확대된 검사 대상은 ①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이력이 있는 자 ②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신규 입원자이다.**

○ 대상자는 기침·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더라도 도내 모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해외 방문 이력이 있을 경우, 보건소 방문 시 여권 및 신분증*과 해외방문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을 지참해야 한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 항공권, 숙박영수증 등

○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의 경우도 모든 신규 입원자는 코로나19 검사 이후 '음성' 판정을 받아야 입원이 가능하다.

○ 제주도는 도내 의료기관 검사역량 등 가용자원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 20일 오후 도내 6개 보건소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긴급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지었다.

< 코로나19 무증상자 검사 대상 확대 방안>

수정 전	수정 후
○ 검사일 기준 14일 이내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경우 ※ 방문이력 증명확인 가능한 항공권, 영수증 등	○ 검사일 기준 14일 이내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경우 ※ 방문이력 증명확인 가능한 항공권, 영수증 등 **○ 검사일 기준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경우** ※ 방문이력 증명확인 가능한 여권, 항공권, 영수증 등 **○ 정신병원 · 요양병원 신규 입원자**
○ 1순위 : 주민등록상 주소가 제주도민으로 되어 있는 자 ○ 2순위 : 제주도 주소를 갖지 않은 자(도외)	

❑ 다만, ▲최근 집단감염 발생지를 방문한 후 기침·발열증상이 나타나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받은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번 검사 확대 방안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사전 유입차단을 위해 모든 예방적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관련 문의 :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 710-2910

특별입국절차 적용 외국인유학생 2주간 자율 관리

- 제주도, 중국인유학생 보호·관리 기준 적용해 선제적 대응 -

❑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입국절차를 적용받아 입도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도 중국인 유학생과 동일한 보호·관리 기준을 적용, 2주간 자율 관리를 진행하도록 각 대학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 합동브리핑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 입도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도 중국인 유학생 및 대구·경북지역 입도 학생들의 보호·관리 기준을 적용해 2주간 자율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 **제주도는 지난 2월 6일부터 중국인 유학생 특별 수송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도내 대학들과 협력해 임시 생활시설 등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 현재 입도하는 중국인 유학생과 대구·경북지역 학생들은 해당 대학과 함께 2주간 자율 관리와 하루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 학생들이 동의할 경우 자율 관리 기간 동안 학교 측이 마련한 임시 생활 숙소에서 머물도록 하고 있으며, 식사·편의물품 제공과 매일 1회 이상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 모니터링 중이다.

❍ 아울러 대구·경북지역 입도자의 경우 대구공항에서 탑승 전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항공기 기내 방송을 통해 감염예방수

칙 준수와 도내 선별진료소에 대한 안내를 병행하며 선제적 대응에 힘을 쏟고 있다.

❑ **현재 제주지역 외국인 유학생 현황은 총 2,236명으로 파악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902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569명, 네팔 397명 순이다.**

◇ 총유학생 수: 2,236명(중국 902명, 유럽 등 38개국 1,334명)

출처: 대학별 국제교류센터,(단위:명)

구 분	계	제주대	국제대	관광대	한라대
총 유학생 수	2,236	850	38	307	1,041
미출도·14일 경과	1,700	681	33	216	770
14일 미경과	107	29	1	11	66
입도예정	103	22	-	-	81
미정·휴학	326	118	4	80	124

❍ 도내 4개 대학별(제주대 · 제주국제대 · 제주관광대 · 제주한라대) 교류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유학생 2,236명 중 실제 특별입도절차를 적용받게 되는 유학생은 22일 기준 103명으로 파악됐다.

- 나머지 2,133명 중 1,700명은 제주에 머물거나 14일이 경과돼 자율적 격리에서 해제됐으며, 326명은 휴학 등 학사 복귀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현재 107명은 최대잠복기 14일이 지나지 않아 대학이 마련한 임시생활숙소 및 격리 기숙사 등에서 선제적으로 자율적 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다.

❍ 각 대학에서는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이 입도 후 14일 동안 자체격리 기숙사 등을 통해 자율적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 관련 문의: 기획조정실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 064) 710-8820

기독교 예배 중지 222곳‥ 3월 1주보다 57개소 추가 동참

- 교회도, 성당도, 사찰도 '한마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나서 -

- 천주교 4.3일까지 미사 중지… 불교계도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등 연기 -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제주 종교계와 꾸준히 소통하는 한편, 적극적인 협력요청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나서고 있다.

❑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지난 22일 도내 개신교 시설 420곳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한 결과 222개 교회(제주시 156곳, 서귀포시 66곳)가 예배 취소 분위기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3월 첫 주말인 1일과 비교 시 57개소가 추가로 예배 중지에 나섰으며, 매 주말 현장 조사와 비교 시에도 가장 많이 동참한 수치다.

○ 부득이 예배를 진행한 교회는 198개소로 대부분 마스크 착용, 예배 간격 1m 이상 간격 유지, 교인 외 출입금지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있었고 참석 규모는 평상시의 30~40% 수준이었다.

- 다만 현장 확인 결과 교인 수 10인 미만 소규모 교회는 영상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영상예배가 불가하고, 온라인 접속이 되지 않는 휴대폰을 지니신 읍면 지역 어르신들이 교회를 방문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배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 이와 함께 천주교 제주교구(28곳)도 지난 23일부터 미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차원에서 오는 4월

3일까지 미사를 포함한 교구행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 불교계에서는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등을 4월말 이후로 연기했으며 법회 중지도 사태 안정 시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 원불교도 법회중지를 당초 22일에서 4월 5일까지로 연장했다.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주말 행사 자제와 부득이 행사 진행시 예방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고 있는 제주 종교계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모든 종교 시설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위해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하겠다” 고 밝혔다.**

○ 한편, 제주도는 양 행정시, 읍면동과 함께 합동 점검지원반을 운영해 밀집 집회 자제를 안내하고 현장예배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 특히, ▲교회 입장 전 증상 체크(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 유무 확인) 및 유증상 교인 출입금지 조치 ▲예배참석자 및 목회자 전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출입시 소독 ▲예배 시 참석자간 1m 이상 유지 ▲예배 전·후 방역 소독 환기, 주기적 소독 등 환경 관리 ▲교회 내 식사 제공하지 않기 ▲시설 내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지역사회 감염 억제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에 동참을 지속적으로 호소할 계획이다.

※ 관련 문의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강기종 종교팀장 064) 710-3206

‘코로나 파고’ 제주수출기업 온라인 마케팅으로 넘는다!

- 연락 끊긴 바이어·수출연기 등 피해… 中공장 가동중단 원자재 조달 어려움 -

- 베트남 온라인쇼핑몰 ‘쇼피’ 제주관 입점… 해외출장 없이 화상상담 길 열려 -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현지 방문이 어려움에 따라 도내 수출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온라인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제주수출지원센터 및 제주FTA활용지원센터 등과 공동으로 지난 2월 5일부터 제주기업 수출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센터 운영 결과 20일 현재 기업 면담 등을 통해 수출 애로사항 48건이 접수됐다.

○ 유형별로는 중국 등 해외 바이어와 연락이 끊기거나 미팅이 취소되면서 약속된 수출이 중단 또는 지연된 사례가 33건으로 가장 많다.

○ 중국 공장 중단에 따른 원부자재 수급 어려움, 상반기 해외 박람회 및 무역사절단 등 행사 중단으로 판매 위축과 매출 감소 등도 접수됐다.

❑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코트라 중심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출장 없이 바이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화상상담회를 지원한다.**

○ 우선, 오는 4월 베트남 온라인 쇼핑몰 ‘쇼피’(Shopee)에 제주상품전용관을 개설해 동남아시장 공략에 나선다. 쇼피는 싱가포

르·대만 등 동남아 7개국 현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픈마켓이다.

○ 도는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공모를 통해 제주관 입점 수출기업 15곳을 선정한다. 선정 기업의 제품은 인증절차를 거쳐 '청정자연 제주의 특별한 상품'을 슬로건으로 현지 소비자들에게 소개된다.

○ 입점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현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홍보 등 집중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해외 공항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오프라인 광고를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로 전환한다. 청정 자연 제주와 스타 상품의 이미지를 담은 15초짜리 동영상 30개를 제작해 페이스북·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 입국 금지 조치로 발이 묶인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코트라와 연계한 화상 상담회 참가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 **아울러 제주도는 수출상품 유통지연에 따른 현지 물류창고 보관비용 및 재고품 매입·판매 지원 등 수출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확보해 실질적인 지원책들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 관련 문의: 일자리경제통상국 김창완 통상물류과장 064)710-3060

“코로나 이겨요” 제주나인리조트 전 객실 격리시설 무상 제공

- 도내 첫 민간시설 지정‥ 외국인 등 입도객 검체 검사 시 임시 체류 시설로 활용 계획 -

- 제주도 “경제적 어려움에도 객실 지원 감사‥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 지속” -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제주시 해안동에 위치한 제주나인리조트가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격리시설)로 활용하도록 58개의 전 객실을 무상 지원했다고 밝혔다.

○ 민간시설이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것은 도내 최초다.

○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은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시 감염병의 확산 방지 및 조기 발견을 위해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를 격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주도는 제주나인리조트를 제주로 입도한 외국인과 여행객들이 검체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시 체류하는 시설로 활용할 방침이다.

○ 이로써 대규모 감염에 대비한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 같은 결정을 해준 제주나인리조트에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감염병 확산 방지와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도내 임시생활시설은 제주도인재개발원 등 총 4개소를 확보, 활용하고 있다.

※ 관련 문의 :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 710-2910

〈참고〉 1. 감염병 예방수칙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카드뉴스
6. 〈일반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마스크 착용방법
8.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9.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참고 1 | **감염병 예방수칙**

질병관리본부 KCDC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발행일 2019.11.5.

참고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질병관리본부 KCDC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유증상자* 예방수칙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코로나19 공식페이지 ncov.mohw.go.kr 에서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0. 2. 25

참고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참고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 · 동거인 생활수칙

질병관리본부
KCDC

2020.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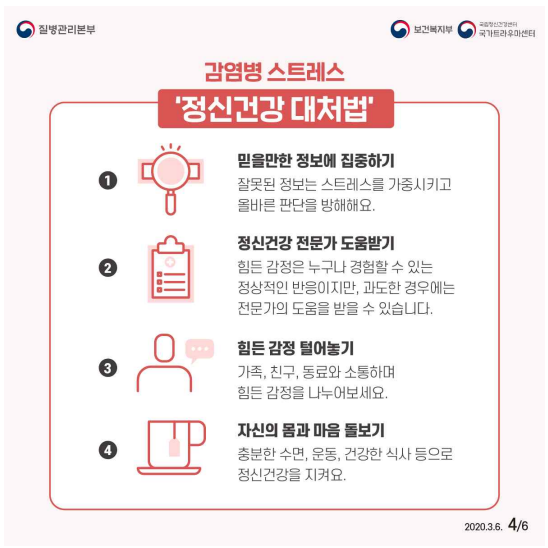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

참고 5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카드뉴스



참고 6 | **<일반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2020.3.7.

코로나19통합심리지원단

감염병으로 인한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통합심리지원단이 함께 합니다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통, 소화불량, 어지러움,
두근거림이 있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불안하고
쉽게 놀라게 돼요

화가 나고
짜증이 많아졌어요

원치 않는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떠올라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집중하기 어려워요

멍하고
혼란스러워요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감염병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한 대응지침을 확인하세요!

만약, 위와 같은 반응이 지속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확진자 및 가족 02-2204-0001~2 (국가트라우마센터)
055-520-2777 (영남권국가트라우마센터)

격리자 및 일반인 1577-0199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 | 보건복지부 영남권국가트라우마센터 | 보건복지부 국립나주병원 | 보건복지부 국립춘천병원 |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 | 질병관리본부

참고 7 마스크 착용방법

발행일 : 2020.2.27.

질병관리본부 KCDC

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병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마스크로 입·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3.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4.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5.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접이형 제품 착용법

컵형 제품 착용법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참고 8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참고 9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우) 04520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13층 / 전화 02)734-9321~3 전송 02)738-1003 / www.journalist.or.kr

코로나19 보도 준칙

코로나19가 갈수록 더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매체와 유튜브 등에서 코로나19에 대해 혐오를 확산시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최일선에 나가있는 기자들의 안전도 크게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관련 언론단체들과 함께 1월말 전국의 지회장들에게 긴급 의견을 드린바 있지만 다시한번 코로나19와 관련 보도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회사 측에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 내용을 기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④ (차별과 편견의 금지) 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종교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취재준칙

② (재난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③ (병원 등 취재) 기자는 병원, 요양소,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3조 보도준칙

⑥ (재난보도) 재난이나 대형사건 등을 보도할 때 상황과 상관없는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